

특별 재개봉작 감상하며 추억여행

전주영화제작소, 개관 10주년
십시일관 영화제 내달 15일 개최

전주영화제작소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십시일관(十視一館) 영화제'를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10명의 셀렉터들의 시선으로 선정한 작품들이 하나의 영화관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영화제 기간 총 3개의 섹션, 11편의 작품이 전주영화제작소 4층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된다.

섹션별로는 지난달에 선발된 관객 셀렉터의 선정작 5편과 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영화인 셀렉터의 선정작 5편, '10년의 선택' 관객 설문조사로 선정된 1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관객 셀렉터 선정작 섹션은 지난 10년 동안 전주영화제작소 상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찾은 관객의 입장에서 개별 셀렉터들이 영화제를 통해 함께 관람하고 싶은 한국독립예술영화들로 이뤄졌다.

선정된 작품은 이광국 감독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홍상수 감독의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전고운 감독의 '소공녀',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김중관 감독의 '최악의 하루'



전주영화제작소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십시일관(十視一館) 영화제'를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등 총 5편이다.

영화인 셀렉터 선정작 섹션의 상영작은 '노무현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토니 에드만', '어바웃 타임', '김군'이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10년의 선택'이란 타이틀로 진행되는 특별 재개봉작은 지난 10년간 전주디지털독립

영화관 상영작 중 다시 보고 싶은 1편을 선정하는 관객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된 선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뽑혔다.

영화제의 자세한 상영정보와 상영시간표는 홈페이지(jonjuincomplex.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내일 슈퍼스타가 탄생한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서 뮤지션 선발 오디션 '빨간 마이크' 개최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선발 뮤지션에 다양한 지원 예정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오는 27일 오후 5시에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2019년도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뮤지션을 공개오디션 '빨간 마이크'를 통해 선발한다.

지난 21일까지 적극적인 모집을 통해 30여 팀이 신청하는 등 레드콘 음악창작소 사업에 대한 열렬한 관심이 있었고 그중 서류심사로 10팀을 1차 선정했다.

이날 공개오디션에서는 1차 선정된 10팀이 각자 준비한 곡을 실연하고 심사위원 5인의 심사평이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점수와 청중평가단 100인의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되는 5팀이 가

려질 예정이다.

이번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뮤지션 5팀은 제3기 레드콘 음악창작소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창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음원 제작,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영상 유통 뿐만 아니라 도내 각종 공연, 행사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참가한 10팀의 열정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선정과정은 5월 3일 금요일 18시부터 2시간동안 JTV 전주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장혜리의 행복발전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전남대 예술대학과 협약 체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학장 정경희)은 25일 문화예술인 전문인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문화예술 전문인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왕기석 원장은 "국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시대의 변화속에 우리 것을 오롯이 지켜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음

악을 창조해 내는 역할과 몫"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개발 및 운영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경희 예술대학장은 "민속국악원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향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음사국악원 장승희 교수와 함께하는 가야금 이야기'가 최근 정음사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정음사국악원 장승희 교수와 함께하는 가야금 이야기' 큰 호응

'정음사국악원 장승희 교수와 함께하는 가야금 이야기'가 최근 정음사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공연은 장 교수의 가야금 스토리텔링과 가야금 공연 관람, 가야금 연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유

치원생 150여 명이 단체로 참여했다.

참여교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통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줘 아이들이 좋아했다"며 "특히 가야금을 만져보고 연주할 수 있는 체험 시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관객이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해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월별로 농악과 국악, 전통악기 등 주제를 달리해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음사예술회관은 매달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내달 공연은 시립농악단의 농악공연과 연희체험이 예정됐다. 6월에는 시립국악단의 국악공연과 체험이 계획돼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임실필봉농악보존회, '필봉 Good 보러가세' 막 올라

임실필봉농악보존회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인 '필봉 Good 보러가세'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임실군 강진면 필봉농악전수관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임실군이 주최하고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무형유산 전문 창작 연희극 '두레종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해설이 있는 필봉농악', 문화 프로젝트 '흥이야! Good이야!' 등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무형유산 퓨전 음악극 '두레놀이'는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공동체 삶과 문화를 주제로 총 4악장으로 구성돼 계절의 흐름에 따른 농촌의 일상을 표현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해설이 있는 필봉농악'은 채상놀이, 실장구놀이, 대포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등 농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놀이 부분을 한데 엮어 공연작품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지역민,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통

문화의 고유성을 알리고 전승,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문화 프로젝트 '흥이야! Good이야!'는 얽은반 설장구, 사물놀이, 판굿연희, 버나 놀이, 죽림을 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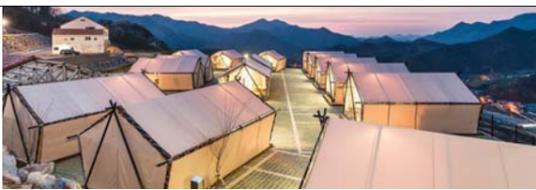
이 밖에도 필봉문화촌에서는 한옥 숙박 체험을 비롯해 풍물놀이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임실필봉농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1988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에 등재됐다.

필봉마을은 필봉농악의 발상지로 400여년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농악을 통해서 민족 고유의 정서를 나누고, 단결과 화합,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 온 곳이다.

필봉농악보존회는 이러한 예술적·역사적·공동체적 가치를 활용해 질 높고, 고품격인 문화공연을 제작해 이를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